

두 번째 정규앨범 '투게더'로 돌아온
씨엔블루



씨엔블루가 14일 쇼케이스에서 신곡 '신데렐라'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리얼 밴드'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들의 정장차림(왼쪽 작은 사진)은 가을을 느끼게 했다.



김정현 기자 won@donga.com

“가장 씨엔블루다운 밴드음악 들려주겠다”

쇼케이스서 몸매 노출...계획된 일탈
아이돌밴드 편견? 우리가 원하는 음악
밴드 접하는 이들에게 방향 제시할 것

밴드 씨엔블루(정용화·이중현·강민혁·이정신)가 1년7개월 만에 '섹시한 남자'로 돌아왔다.

씨엔블루는 14일 서울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투게더' 쇼케이스를 열고 새 노래들을 공개했다. 이날 타이틀곡 '신데렐라'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를 공개해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단정한 정장차림이 어렸던 이들의 신체노출은 나름 '파격'이었던 것이다.

정용화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운동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멤버들마다 노출이 조금씩 있는데, 모두가 다 노출하면 앨범 색깔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조절했다"며 웃었다.

단순히 몸매자랑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앨범에 담긴 씨엔블루의 지난 1년 7개월의 고민의 표현이다. 정용화는 "우리가 건전한 이미지가 있는데, 일종의 일탈을 하고 싶었다. 내면에 감춰진 것들을 꺼내놓은 것 같다"고 그 숨은 '의도'를 설명했다.

2010년 데뷔한 씨엔블루는 곱상한 외모에 정통 록보다는 대중적인 곡들로 사랑 받았다. 이런 까닭에 '아이돌 밴드'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연주력에 대한 의심까지 받았다. '너희가 밴드가 맞느냐'는 비판의 시선도 감수해야 했다. 지난 6년을 편견과 맞서는 씨엔블루는 이번만큼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너희들이 밴드냐" '리얼로 (연주)해야 밴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도 억지로 밴드 성향에 맞춰 곡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전 그런 의견 생각하지 않고 씨엔블루답게 악기를

연주하고 편곡하고 변화를 주려 했다. 처음 이번 신곡을 듣게 되면 '리얼'한 연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들었을 때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스타일의 연주를 했다. 이제 우리 색깔을 유지한 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년 차 '밴드'에 대한 소신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정용화는 "나는 아이돌 밴드, 메이저 밴드, 마이너 밴드 이런 편견이 없다. 같이 힘을 합해야 더욱 더 밴드시장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밴드를 접하는 친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같이 풀어가면 된다"고 했다.

밴드에게 꿈의 무대는 록 페스티벌이다. 오롯이 자신들의 연주이고 음악이어야 오를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도 록 페스티벌에 가고 싶다. 그동안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데뷔 초반에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겁이 났지만, 이전 나가도 최선을 다하고, 안 좋은 인식을 깰 수 있다는 준비

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정용화는 음원차트를 점령하는 힙합음악에 대해 "나도 힙합을 좋아한다.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들도 잘 봤다"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톱밴드'처럼 밴드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도 나와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밴드 음악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씨엔블루는 '신데렐라'를 열창하며 풍성한 사운드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강렬한 연주를 선보였다.

'투게더(Together)'는 2집을 의미하는 숫자 2와 '함께'를 뜻하는 '투게더'를 합성한 이름이다. 씨엔블루의 음악을 다 함께 즐기자는 의미다. '신데렐라'는 일렉트로닉 요소가 가미된 팝곡으로, 고전동화를 재해석했다. '숨바꼭질' '톨레코스터' '도미노' '히어로' '드림 나이트' 등 정용화와 이중현의 자작곡 11곡이 수록돼 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6년 9월 15일>

'이경규가 간다' 백두산 오르다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경규(사진)가 SBS '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딸 예은양과 소통해가는 과정으로 화제다. 작전 SBS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와 '봉어빵' 등을 진행하며 방송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다진 지 오래다. 1981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경규는 1990년대 초반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그 무대가 바로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코너 '플레이카메라'였다. 이후 이경규는 또 하나의 히트작을 이끌었다.

1996년 오늘, 이경규가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연출자인 '살집아저씨' 김영희 PD 그리고 또 다른 출연자 민용태 교수와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플레이카메라'에 이은 또 하나의 인기 코너인 '이경규가 간다' 추석 특집편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달 29일 방송한 '이경규가 간다'에서 이경규 등은 백두산을 찾아 한라산 백록담에서 퍼온 물과 흙을 천지에 뿌리며 통일을 기원했다. 들개바람을 맞으며 협준한 산길을 오른 이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어렵게 천지에 발을 디뎠다. 기상 상황 등 이유로 방송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중국 당국의 통보에 관광객에게 허용된 8mm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이들의 표정은 상기됐고 이 모습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이경규가 간다'가 사람이 아닌 공간을 감아간 것은 처음이었다. '이경규가 간다'는 1996년 봄,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는 물론 정치인 등 사회 각계 인사를 사전약속 없이 찾아가 그들의 소탈한 인간적 면모를 담아내며 인기를 얻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엄기영 앵커 등이 이 코너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그해 겨울 개편을 통해 '숨은 양심을 찾아서'라는 콘셉트로 변화했다. 11월29일 밤 서울 여의도 거리에 카메라를 숨겨 놓고 심야시간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나섰다. 4시간 15분 만에 찾은 주인공은 장애인 부부였다. 많은 시청자가 눈물과 감동 속에 이 장면을 지켜봤다. 이를 지극한 이경규와 제작진은 "교통문화와 질서외식을 고취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 업소를 찾아가는 '양심가게' 등을 찾아가는 '숨은 양심' 시리즈로 이어졌다. '숨은 양심'들에게는 '양심냉장고'를 선물했다.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

클리비 재결성 앨범 10월 중 발표

공연 위주 활동...예능·토크쇼 출연 예정

'원년멤버로 컴백'을 발표해 화제가 됐던 그룹 클리비(사진)의 활동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4일 클리비 멤버 측에 따르면 클리비는 재결성 앨범을 10월 중 내기로 했다. 아울러 음악방송 출연보다는 공연을 위주로 한 활동으로 팬들을 만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일부 멤버들이 예능프로그램이나 토

크쇼 등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식의 방송출연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종혁과 김상혁은 SBS가 추석특집으로 마련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노래를 살려라, 심폐소생술' 녹화에 출연했다.

클리비의 이 같은 행보는 god가 작년 13년 만에 원년 멤버 5인으로 재결성하며 택했던 활동방식이다. 공교롭게도 클리비 역시 원년 멤버 7인으로 재결성되기는 2002년 3.5집 이후 13년 만이다.



클리비는 현재 곡 수집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음반에 담긴 곡들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곡이 끝나면 곧바로 녹음을 시작해 10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클리비는 우연석·김태형·오종혁·김상혁·하현근·유호석·노민혁 등 7명으로 1999년 데뷔해 '백전무패' '드리밍'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02년 3.5집 '너에게'를 끝으로 7인 체제 활동을 마감했고, 이듬해 우연석·오종혁·김태형·김상혁 4인 체제로 음반을 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사실상 해체상태였다가 2011년, 김태형을 제외한 6명이 8년 만에 앨범을 발매했고, 2013년 12월 DSP미디어가 주최한 'DSP페스티벌' 콘서트에 당시 군복무중이던 유호석(예반)을 제외한 6명이 11년 만에 공식무대를 가지면서 '원년멤버 컴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김원경 기자

빅마우스

● "제일 사랑하는 선배님은 배우 지성." (연기자 황정음) 14일 MBC 수목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제작발표회에서, 앞서 '킬미힐미'에서 호흡을 맞춘 지성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 "하정우에게 조언 얻었다." (연기자 엄지원) 14일 영화 '더 폰' 제작보고회에서, 전화통화로 상황을 연기하기 어려워, 먼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하정우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형일입니다. 남성이 당당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바뀐다면 '뉴맨'이 확실한 패트를 드립니다. 강한남자 '뉴맨!'입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사용당일 나타나는 막강 파워!

1. 힘이 약하다 ➔ 본인도 놀라는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세상에 없는 반품제도! 효능의 자신감입니다.

출시10년! 반품을 4%대! 세상에 없는 반품제도를 만들게 된 원동력과 자신감입니다.

상담원과 통화 필요없는 반품 시스템

15일간 사용해보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택배비 고객부담) 메모와 계좌번호, '뉴맨'을 보내주시면 도착 다음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보다 반품이 더 간단한 세상! '뉴맨'이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뉴맨'의 광고를 접하면서 이런 작은 반지가? 에이 설마? 하는 의심이나 불신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유수의 스포츠신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에 꾸준히 광고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제도라면 신뢰해서도 되지 않을까요.

Danm NAVER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이하	주문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이상	주문 제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환불

T. 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비우로9길 20 (우원동) (주)케이엔제이스포츠 통신판매 허가 번호 0701호